



식약처장,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한 합리적 규제혁신 강조

-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
- 식약처장,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 개최
-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적극 지원
-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화장품 안전 철저하게 관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월 28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 화장품 분야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역량을 갖추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화장품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도약! (JUMP-UP) K-코스메틱*’을 통해 업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며,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업계-협회 전문가들로 4개 분과(제도, 안전, 제조·품질, 자격·교육) 구성,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과 민간 주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추진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의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식약처의 규제혁신 방안과 업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수출협회 (업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클리오, CJ올리브영, 비모뉴먼트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나 미국의 화장품법 현대화 규정 제정 등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도 업계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앞장서 노력하고 계신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강화된 국제 규제 흐름 속에서도 K-뷰티가 세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지훈 (043-719-3401)
		담당자	사무관	이만덕 (043-719-3402)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023. 3. 28.(화), 14:00 ~ 14:30
- (장소)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 (참석) 회장, 기술연구원장 등 6명
- (목적) 임직원 격려, 현장 애로사항 및 주요 수출 제품 설명 청취

□ 간담회 개요

- (일시) 2023. 3. 28.(화), 14:30 ~ 16:00
- (장소)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 (참석) 관련 협회, 8개 업체
- (주요내용) 2023년 주요 정책방향 소개, 식약처 미래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세부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현장 방문	14:00~14:25	25'	현장 소개 및 투어
	14:25~14:30	5'	이 동
간담회	14:30~14:45	15'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
	14:45~14:50	5'	'23년 주요 정책 방향 등 소개
	14:50~15:05	15'	화장품 산업 현황 및 미래 전망 발표
	15:05~15:55	50'	규제혁신 및 미래 발전방안 등 논의
	15:55~16:00	5'	마무리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 도약! (JUMP-UP) K-코스메틱 -

- (배경)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민·관 소통창구 마련 필요
- (추진내용) 화장품 국제 규제 동향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과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수렴,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수출 지원 방안 등 논의·추진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11 발표)의 일환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개선,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인증 전환 등 추진 중

